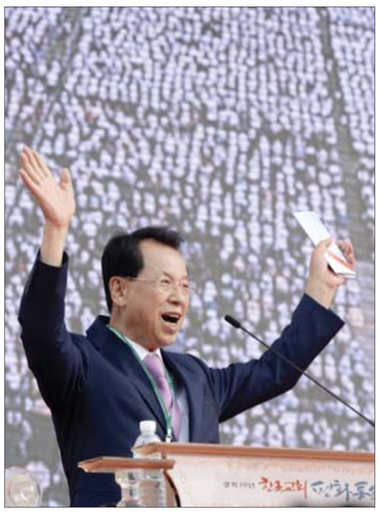
교회관행 세습에 '급제동'

명성교회 세습무효 판결… 교회 측은 사실상 불복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 판결은, 국내 교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져온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신교계는 평가하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세습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103회 총회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전날 밤 판결했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지난달 16일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이 이 신청에 대해 재심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날로 미뤘었다.

세반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국이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단헌법 28조 6항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조항에 '세습 금지'가 명문화돼 있다.

이와 함께 세반연은 "대형교회의 돈과 힘으로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추락시키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도 해석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까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교회와 교단은 금번의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을 불법세습으로 규정한 세반연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불법으로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세습으로 일부 세력이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해왔다. 예장 통합 교단 소속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생들도 명성교회 세습을 문제 삼고, 공동행동을 해왔다.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김 원로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낸 개신교의 얼굴로 통한다.

이번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하지만 새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가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힘에 쏠리면서, 일각에서는 교단 탈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명성교회 측은 이날 오후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 사역을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개신교계 안팎에서는 명성교회 측이 교회법에 따른 재판국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의 교단 탈퇴도 예상한다. 탈퇴가 현실화되면 초대형 교회라, 교단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명성교회도 이 답안지를 택할 경우, 교인 탈퇴 등을 감수해야 한다. /뉴시스

광주비엔날레,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은 예술정신 탄압"

세계 5대 비엔날레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7일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그 이후 기획전' 중단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저지하고 검열한 폭력적인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표현의 부자유-그 이후'는 그동안 일본의 공공미술관에서 전시 중지를 당하거나 철거당한 작품들로 기획된 전시이다"며 "이번 전시 중단 사태로 인해 예술가와 예술작품, 기획자와 전시가 개최된 지자체의 자율성과 명예를 훼손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광주비엔날레가 7일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비엔날레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제도권 안에서 다루기 힘든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다양한 시각예술 담론으로 펼쳐왔다"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전시 중단 결정은 비엔날레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예술적 창작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되며 예술적 표현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아이치 트리엔날레 측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하루속히 전시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4년 행사 때 박근혜 정부를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에 대해 전시 중단을 결정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참여했던 작가들은 작품 철거로 항의했으며 광주비엔날레 대표 등이 물러났다. 이후 광주비엔날레는 전시 중단에 대해 반성했으며 3년여만에 작품을 재전시했다. /뉴시스

역동적인 심장소리, 두드림의 미학

부안군, 극단 청명 초청 'FUNNY CONCERT'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타악퍼포먼스 '청명'을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난타 공연 섭외 1순위 극단 청명이 부안에 온다. 극단 청명(대표 김민석)은 난타 퍼포먼스 공연의 선두주자로 특히 단원 정관모는 부안이 고향이다. 넌버벌퍼포먼스 난타의 주연배우들과 군악대, 뮤지컬, 한국무용 전공자 출신의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전통과 퓨전을 접목한 창작공연을 통해 문화 공연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타악퍼포먼스 그룹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크루즈사와 협약해 선내 정기공연을 통해 전 세계인을 만나고 있는 세계적인 극단이다.

이번 공연에서 스틱과 북의 현란한 움직임을 통한 화려한 볼거리로 역동적인 심장소리, 두드림의 미학을 만나 볼 수 있으며, 브라스통의 멋진 브라스 연주와 한국무용 춤판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관객들과 함께하는 리듬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보여 줄 예정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통과 현대의 리듬을 아우름과 동시에 웅장하고 파워풀한 무대 현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이내믹하게 연주되는 다양한 타악기는 흥겨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을 위하여 자체 기획한 본 공연에 많이 오셔서 타악퍼포먼스의 신명나는 무대를 감상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선착순 무료(모든 연령 관람가)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기자

임실문화대학, 지역 문화갈증 해소 '톡톡'

임실문화원이 주관하는 임실문화대학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은 올해 임실문화대학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 인문학을 얘기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대학은 '내가 사는 임실, 아름다운 임실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매주 수요일 임실문화원 강의실에서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다.

7일에는 임실지역 설화의 특징과 의미 강좌를 전주교육대학교 정한기 교수 인문학 강연으로 교육생들의 관심도와 참여가 높았다.

오는 14일, 마을지명으로 살펴 본 인문학 강좌를 전라금석문학회 김진돈 회장이, 마지막인 21일날에는 우리말 해설 강좌를 임실문화원 최성미 원장의 주재로 진행된다.

심민 군수는 "올해 임실문화대학을 통해 아름다운 임실의 역사·문화 이야기 강좌를 계기로 군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임실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